

본당 소식

2024년 5월 생활말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1요한 4,8)”

♣ 5월 26일 세례식 안내

- 오는 삼위일체 대축일(26일)에 네 명의 예비신자(성인3, 아이1)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새 영세자들을 위해 신자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5월 5일 성가정 미사 - 미사 후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 행사가 있습니다.

전례자 : 박세아 루시아

주복사 : 엄채운 엘리사벳

부복사 : 김사빈 엠마

제1독서 : 김익찬 암브로시오

제2독서 : 강윤이 스텔라

알렐루야 : 정아인 레나

보편지향기도 : 안태오 마태오, 변가인 헬레나, 안태리 소화데레사, 정이한 다윗, 강윤아 헬레나

특송 솔로 : 박동현 요한보스코, 이가은 마리아판체아

♣ 5월19일 성령강림 대축일 이민자국 미사 안내

- 일시: 5월 19일, 10시30분

- 장소: Parrocchia S. Curato D'Ars, Largo Giambellino 27

- 이민자 공동체 미사 관계로 본당 미사는 없습니다.

♣ 봉사자

• 계단,화장실: 김익찬 암브로시오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35,97€ • 교무금 00,00€

전례 봉사

전례 성가

입당 : 어린이성가 교회 종소리

봉헌 : 어린이성가 동그랄게 다발엮어

성체 : 어린이성가 성체 안에 계시는

파견 : 어린이성가 어린이처럼

| 이번 주일(5일) | 다음 주일(12일) |
|-----------------------|-----------------------|
| 1독서: 김익찬 암브로시오 | 1독서: |
| 2독서: 강윤이 스텔라 | 2독서: |
| 복 사: 엄채운 엘리사벳, 김사빈 엠마 | 복 사: 강윤이 스텔라, 변가인 헬레나 |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이승지 로사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2024년 5월 5일 (백) 부활 제6주일(생명 주일)

미사 전례

화답송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제1독서 (사도행전 10,25-26.34-35.44-48)

25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르넬리우스는 그에게 마주 나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26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35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십니다.”

44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45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46 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면서
 하느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다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47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48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다.

제2독서 (요한 1서 4,7-10)

7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8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9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
 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10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알렐루야.

복음 (요한 15,9-1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10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11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12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13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14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15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16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17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태오 마태오)
 모든이의 일치를 바라시는 주님 저희공동체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공동체에
 관심을갖고 사랑으로 다가가며 아끼는 마음을 더해 서로 화합하게하시고 그들이 신
 앙으로 하나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게 하소서
2. 생명 주일을 맞아 생명 수호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변가인 헬레나)
 생명이신 주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3. 세계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태리 소화데레사)
 사랑의하느님 세계에있는 모든이에게 지혜의 성령을 보내시어 나쁘고 욕심된 마음을
 갖지않고 진실과 정의를 전하며 평화를 얻게하는데 앞장서게 하소서
4. 수험생들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이한 다윗)
 하느님, 저희 수험생들과 청소년들을 돌보아 주세요.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시험을
 치는 동안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청소년들에게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시어, 학교에서 함께 즐겁게 지내고, 열
 심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소년과 수험생 모두 항상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해주세요.
5.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윤이 헬레나)
 사랑이신 주님,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이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옆에서 지켜주세요.

+ 부활 삼종기도 (예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 기도합니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